통도사 화엄산림 비대면 회향 법석

1월 12일 통도사 설법전서

유래 없는 비대면 온라인 법회
모두를 위한 배려 정신 돋보여
온라인 통해 불자들 참여 높아
"이것이 사회 기여하는 보살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는 1월 12일 경내 설법전에서 '불기 2565년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통도사 화엄산림법회가 회향됐다. 비대면으로는 처음 진행 된 화엄법회였다. 설법전에는 영가 위패만 벽을 가득 채웠고 사중 스님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문은 설해졌다. 현장에 참석 못하는 대중들은 아쉬워했지만 방장 성파 스님은 이것이 "모두를 위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1월 12일 경내 설법전에서 '불기 2564년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방장 성파 스님은 "오늘 회향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동안 관계자 및 스님들의 노고를 치하한 인사말이다. 화엄산림법회가 시작된 이래 처음 맞는 비대면 법회는 수많은 준비와 시행착오를 경험해야 했다. 새로운 영상 시스템과 마이크를 구축해야 했고 찾아오는 대중들이 거리를 지키도록 스님들은 당부하며 보호해야 했다. 법회는 유튜브 세계문화유산 통도사와 네이버밴드 화엄의 숲에서 라이브로 실시간 방송됐다. 법문 후에는 언제나 볼 수 있도록 법회 영상을 제공했고 누구나 시청하며 화엄의 세계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텅 빈 법당 위에 법문은 설해졌지만 중중무진(重重無盡) 화엄의 세계는 온라인 전파를 통해 전국 곳곳으로 펼쳐졌다.

회향 법회 라이브 방송에서 불자들은 댓글을 통해 감사 인사를 올렸다.

유튜브를 찾은 권혜경 불자는 댓글을 통해 "적멸보궁 통도사의 그윽한 향기가 먼 곳 까지 전해온다"고 했고 밴드를 찾은 은희옥 불자는 "동참 할 수는 없었지만 화엄산림 법회가 원만히 회향하게 됨을 감사드린다. 좋은 법문을 들려주신 스님들께 합장한다"고 전했다. 법회 가운데 법문을 댓글에 따라 적는 불자들도 있었고 라이브 법회를 큰 화면으로 보기 위해 TV 까지 장만하는 불자도 있을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다.

불자들은 법회 후 설법전에 들어 올수 있었다. 위패가 있는 영단에 지의(紙衣)와 공양물을 올리고 조상 및 인연 영가를 위해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방장 성파 스님은 "모두가 슬기롭게 대처했다. 아주 훌륭하다"며 "혹한기 한겨울의 고난 속에 선비의 지조를 알 수 있듯이 지금처럼 힘들 때 지혜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의지를 보게 된다"고 했다. 이어 스님은 "장장 한달 간의 큰 불사였다. 그 가운데 한사람의 확진자도 없었다. 이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이 서로를 위한 배려 정신으로 대중들은 앞으로도 살아 갈 것이고 이 정신으로 사회에 기여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주지 현문 스님은 "유래 없던 코로나 사태로 법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만나지 못한 이 시간이 안타깝고 법당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대중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어서 코로나 19가 사라지고 다같이 모여 법회가 성만히 회향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도사 화엄산림회향 법회는 위패단 관욕의식으로 시작해 사시불공, 회향법어, 회향 시식, 제령위패 봉송의식으로 마무리 됐다. 모든 영가를 대표하는 제령위패 만 우선 봉송 의식이 진행됐으며 불자들의 개별위패 참배는 설법전에서 1월 15일 까지 가능하다.

한편, 통도사와 불교신문이 공동주최한 '화엄산림 대법회 신행수기' 공모 수상자도 발표됐다. 영축총림 상은 강헌정 불자가 금강계단상은 최효분 불자로 선정됐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UCC 공모전' 은 영축총림상 이승현 학생, 금강계단상 조응균, 정수연 학생이 각각 받았다. '신행수기' 영축총림상은 300만원, 금강계단상은 200만원의 상금이 전달되며 'UCC 공모전' 의 영축총림상은 100만원, 금강계단상은 각 5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된다.

이외 '신행수기' 부문에 화엄등묘각상을 비롯한 22명의 수상자와 'UCC' 부문의 적멸보궁상 등 4명도 선정됐다. 수상자는 신행수기 24명, UCC 7명 등 총 31명이다. 시상 일정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추후 논의 후 진행 된다.

세상 맑히는 청량제 같은 시어(詩語)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 네번째 시집 발간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이 네 번째 시집<문 없는 문을 열고>를 발간했다.

시를 짓는 것을 수행과 포교의 도구로 삼아온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이 네 번째 시집〈문 없는 문을 열고〉를 발간했다.

덕진 스님은 시집 〈문 없는 문을 열고〉에서 자연과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심상을 아름다운 시어에 담아 전달하고 있다.

시집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제목은 '자연 향기' 이다. 낮달, 산딸기, 꽃 무릇 등 일상 속에서 만나는 소소한 자연의 목소리를 대신 하듯 시로 묶었다.

2부는 '비워야 채운다' 는 제목으로 소개됐다. 스님이 일상의 사유 속에 얻은 지혜를 담담한 언어로 해석했다.

3부 '인연따라' 는 스님이 만나는 사찰, 지역, 인연들의 의미를 강조하고 중요한 의미를 시로 풀어 설명했다.

4부는 '언제나 기쁨' 이다. 스님의 시를 동요와 찬불가로 제작해 소개해두었다.

마지막 5부는 '무문방(無門房)' 이다. 무문방은 스님의 치열한 수행 과정과 결과를 담아두었다. 덕진 스님은 1992년 문학세계를 통해 등단한 이후 꾸준한 시작(詩作)으로 〈연꽃처럼 햇살처럼〉, 〈맑은 마음 고운 세상〉, 〈바다처럼 (울산이야기)〉 등 시집을 발간해 왔다.

이번 〈문 없는 문을 열고〉는 6년 만에 선보인 시집이다. 스님은 현재 정토사를 창건하고 정토불교대학 학장, 사단법인 동련이사, 울산지방경찰청 경승실장, 행복한평생교육원 원장 등으로 포교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덕진 스님은 "시(詩)가 포교 방편이자 수행"이라 설명했다.

스님은 "고통 번뇌의 약이 되고 방황자의 길이 되고 외로운 자의 벗이 되고 세상 맑히는 청량제가 되려고 힘쓴다. 내 시도 그렇게 되라고 작은 희망 가져본다"고 발원했다.

시집 〈문 없는 문을 열고〉는 문학서적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도서출판 천우에서 발행했으며 신국판 크기 165쪽으로 총 82편의 작품이 수록 돼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경남포교사단, 조직 구성에 나선다

포교 위한 비대면 신년법회 봉행



경남포교사단은 1월 9일 쌍계총림 쌍계사에서 '불기 2565년 신축년 신년법회' 를 봉행했다.

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이하 경남포교사단)이 신년을 맞아 신년법회를 봉행하고 포교 의지를 굳게 세웠다.

경남포교사단(단장 박해덕)은 1월 9일 쌍계총림 쌍계사에서 '불기 2565년 신축년 신년법회' 를 봉행했다.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신년법회는 비대면으로 봉행됐으며 박해덕 경남포교사단 단장과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됐다. 온라인 방송에는 경남 지역 포교사단 100여명이 동참해 함께 법회를 봉행하고 포교를 향한 의지를 다짐했다.

법회에서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은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경남지역 포교사로 활동하며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 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해덕 단장은 "지난 한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성과들을 이뤄냈다"며 "무엇보다 포교사단 단원들께 감사하며 조직을 개편해 안정화하고 사무실을 열어 수행과 정진에도 앞장서고 있다. 신년을 맞아 더욱 열심히 활동하는 포교사단이 되도록 정진하자"고 말했다.

한편, 경남 포교사단은 구랍 30일 창원 성주사 도심포교당 마하연에서 우수 장학생을 위한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하고 인재불사에 앞장섰다.

장학금은 경남 포교사단이 매달 모금한 무소유실천운동 기금으로 마련됐으며 장학금 외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2명에게도 지원금을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 보물지정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固城 玉泉寺 靈山會 掛佛圖 및 函)' 과 함양 등구사 '미륵원명 청동북' 이 보물로 지정됐다.

등구사 미륵원명 청동북 등
1월 7일 문화재청 지정 고시
18명 화승 참여 제작도 의미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固城 玉泉寺 靈山會 掛佛圖 및 函)' 과 함양 등구사 '미륵원명 청동북' 이 보물로 지정됐다.

경남도는 1월 7일 문화재청이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 및 함' 은 보물 제2110호로 지정됐으며, 1808년(순조 8년) 수화승 평삼을 비롯한 18명의 화승이 참여해 제작했다. 20개의 화폭을 붙여 높이 10m의 크기로 만든 대형불화이며 도상(圖像)은 석가여래 삼존과 아난존자와 가섭존자, 6존의 부처를 배치한 간결한 구성이다. 화기(畵記)에 '대영산회(大靈山會)' 라는 화제가 있어 영산회 장면을 그린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전반적 화풍은 18세기 전통을 계승하고 색감이나, 비례, 인물의 표현, 선묘 등은 19세기 전반기로 과도기적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므로 불교회화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괘불함은 옻칠로 마감하고 다양한 모양의 장석과 철물로 장식됐다. 형태를 잘 간직하고 있어 기술 측면에서도 우수성이 뛰어나고 공예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함양 등구사 '미륵원명 청동북' 은 보물 제2109호로 지정됐다. '미륵원명 청동북' 은 비교적 큰 크기와 뛰어난 조형성, 우수한 주조기법 등을 가지고 있는 고려시대 작품 이다.

1190년(고려 명종 20년) 공주 미륵원에 걸기 위해 제작됐으며, 새겨진 명문을 통해 제작시기와 사용처, 무게는 물론 '미륵원' 의 위치가 공주 차현(차령) 인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을 땜을 통해 보수하는 등 고려시대 청동북의 제작 양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